



박철홍(왼쪽) NH농협은행 여신심사·기업구조개선부 부행장이 15일 중구 통일로 농협은행 본사 대강당에서 '손익목표 달성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임직원들, 손익목표 달성 결의

NH농협은행 여신심사·기업구조개선 부서는 1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직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익목표 달성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철홍 부행장을 비롯한 여신심사·기업구조개선부 임직원 일동은 핵심 과제를 공유하며 손익목표 달성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청렴 및 준법 준수

를 위한 결의문을 제창하며 '청렴한 농협,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 구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박 부행장은 "여신심사·기업구조개선 부서가 손익목표 달성과 윤리 경영을 선도할 것"이라며 "농심(農心)으로 무장해 수익센터 역할을 강화하며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m1@

금융당국 차기 회장 선임 '급제동'에도

하나금융 회추위, 오늘 최종후보군 확정

김정태 회장 연임 순항 예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을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하나금융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인터뷰를 거쳐 오는 16일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

하나금융 회추위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차기 회장후보군(16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예정대로 16일께 최종 후보군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회장 선임 절차를 미뤄달라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후 CEO 리스크가 불거지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추위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회장 후보군은 김정태 회장을 포함해 김병호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의 내부 인사와 12명의 외부인사 등 총 16명이다. 심층면접을 거친 뒤 16일 3~4명의 최종후보군을 발표하고 22일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김정태 회장의 3연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성공작으로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마무리한 점, 포용적 성장에 적극 나선 점에 후한 점수를 준다. 여기에 지난해 순이익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서 제기된 의혹만 없다면 차기 '왕좌'에 오르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김민호 기자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회추위의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하나금융그룹에 차기 회장 선임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루된 KEB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과 채용비리

우리은행, 주가지수 연동예금 판매

기초자산 변동 따라 이자율 결정

우리은행은 오는 24일까지 주가지수 연동예금 '우리Champ(챔프)복합예금 18년-1호'를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까지 주가지수 연동예금 '우리Champ(챔프)복합예금 18년-1호'를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Champ복합예금 18년-1호'는 삼성전자 보통주, 코스피200지수 등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예금이다.

이 상품은 만기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고 최고 연 5.0%의 수익률과 최저 연 1.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할 경우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해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삼성전자 상승형, KO SPI200 상승형, KOSPI200 양방향형 구조로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 상승형'은 가입기간 중(기

준지수결정일~만기지수결정일) 기준지수 대비 지수가 20%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으면 주가지수 상승률의 17.5%를 연환산해 최고 연 5.0% 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 또 저축기간 장중 20%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거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더라도 연 1.5% 수익률을 보장한다. /채신화 기자

거점지역 경기부진·부동산 경기 변동 등

지방은행, 中企대출 확대 '빨간불'

4대은행 대손충당금 93% 적립
2대 외국계 은행은 156% 달해
BNK·JB계열 76%·61% 불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자산건정성 부문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거점지역 경기부진과 부동산 경기 변동성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확대 여력이 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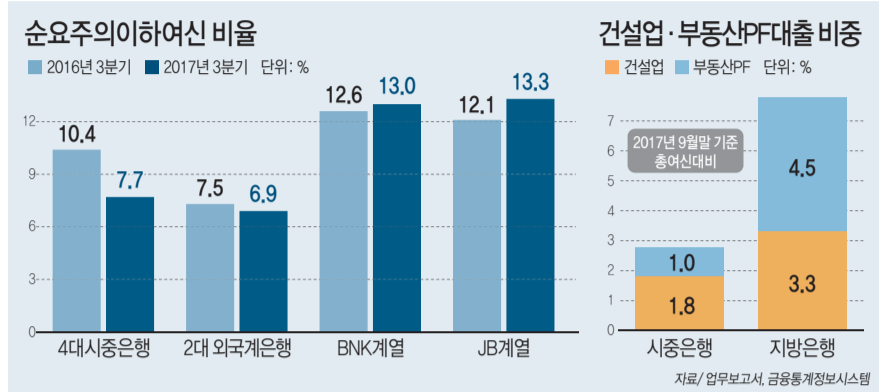
1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8%이다. 요구이하여신비율은 1.48%였다.

시중은행들이 부실여신 상각 매각에 적극 나선 결과다.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92.5%였다. 2대 외국계 은행은 155.6%였다.

반면 BNK계열은 76.3%, JB계열은 62.1%에 불과했다. 제주은행은 27.2%로 충당금 커버리지가 낮은 수준이었다.

순요주의이하여신 비율도 4대시중은



행은 7.7%였다.

2대 외국계은행은 6.9%로 낮았다.

반면 BNK계열과 JB계열은 각각 13.0%, 13.3%에 달했다.

순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은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합친 통합 손실흡수력이 요구주의이하여신 대비 얼마나 충분한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한국신용평가 위지윌 연구위원은 "우량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공백을 메우고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거점지역 경기부진, 부동산 경기 변동성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확대 여력이 충분치 않은 지방은행은 성장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자본비율 여유가 충분치 않은 은행은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평가 윤희경 책임연구원은 "지방은행의 건설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비중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면서 "지방 부동산 경기 역시 하강추세여서 신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이동빈 "경쟁력 있는 강한 은행으로 전진"

〈Sh수협은행장〉

'중견은행 일등은행' 새 비전 제시
'올해 고객중심 구조 직제 개편'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이 올해 소매금융 전략 등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중견은행 일등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빈 행장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전국 영업점장 등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전 임직원의 열정과 혁신의지를 한데 모아 '중견은행 일등은행'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강한 은행으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새 비전인 '중견은행 일등은행'은 Sh수협은행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내실 있고 알찬 중견으로 도약하려는 의미와 중견은행 중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일등은행이 되자는 뜻이 담겨있다.

이 행장은 또 Sh수협은행의 2018년 경영목표를 '경쟁력 있는 강한 은행'으로 정하고, 이같은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해 '함께 뛰자!'를 슬로건으로 공표했다.

5대 핵심 과제로는 ▲자율경영기반 구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이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18년 경영전략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있다. /Sh수협은행

축 ▲소매금융 경쟁력 강화 ▲질적성장 및 내실경영 ▲수익창출 기반 확대 ▲강한 기업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추진 과제 중에서는 특히 '리테일금융 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이 행장은 2018년 경영전략을 직접 프리젠테이션하며 "올해는 고객 중심 구조로 직제를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 강화, 허브앤스포크(Hub&Spoke) 전략 등 대고객 접점 확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비전 선포식에 이어서는 '2018년 제1차 전국 영업점장 경영전략회의'도 개최했다.

이 행장은 영업점장 전원에게 구두를 선물하며 "신입행원부터 임원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걸음 더 뛰어 '중견은행 일등은행'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KEB하나은행 '남산 케이블카' 성화봉송

함 행장,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KEB하나은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공식후원 은행으로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고자 성화봉송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남산서울타워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KEB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인천시 남동공단 소재 삼천리기계 서홍석 대표가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해 남산 케이블카를 활용한 이색 성화봉송을 실시했다.

KEB하나은행장이 안전램프에 옮겨진 성화를 들고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오른 후 다시 성화봉에 옮긴 성화를 들고 봉화대에서 남산 팔각정과 남산서울타워 일대를 돌며 진행했다. 이날 남산서울타워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환호를 하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다 함께 응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성화봉송에 참여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공식후원 은행으로서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화봉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15일 남산서울타워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KEB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인천시 남동공단 소재 삼천리기계 서홍석 대표가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해 남산 케이블카를 활용한 이색 성화봉송을 실시했다. /KEB하나은행

/김민호 기자